

모든 성인의 날
대 축 일

기도서 P. 513

제1독서(묵 시 7,2-4. 9-14)
제2독서(요한1서 3, 1-3)
복 음(마 테 5, 1-12a)

숲 정 이

발행 권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감 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박 병 준 신부

동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하늘나라 임금어 어느날 “세상 사람중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아, 그의 내외와 하늘 선물과 바꿔오라.”고 했다. 왕의 신하는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큰 나라의 왕이러니 생각하고 왕을 만나 “임금님은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 힐끗 쳐다보면서 “천만의 말씀, 누가 내 왕관을 탐내지 않을까, 적이 내 땅을 빼앗지 않을까 잠시도 마음놓을 수가 없소.” 신하는 발길을 돌려, 제일 큰 부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아니오, 창고의 곡식을 도둑이 훔쳐갈까 봐 잠을 잘 수가 없소.” 신하는 다시 제일 박식한 박사를 찾는등의 노력을 했으나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기진맥진한 그는 날이 저물어 어느집 문을 두드렸다. 젊은 부부가 그를 따뜻히 맞았다. 친절하고 다정한 그 부부는 무척 행복한 표정이었기에 설마 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뜻밖에도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하느님은 건강을 주셨고, 우리는 숨김없이 믿고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랍니다.”고 신뜻 대답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신하는 선물꾸러미를 내놓고 내외와 바꾸자고 했다. 젊은 부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좋지요. 우리는 내외를 잃어 본 일이 없는데요.”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이다. 하늘 나라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도 이 하늘나라의 행복을 영원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이 행복에 우리 삶의 모든 목표를 두고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면서도 불행한 사람,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별로 갖지 못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본다.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덟가지 행복, 산상 설교 말씀은 그 비결을 알려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행복케로 초대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이 행복을 찾아 얻게 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하늘나라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본 사람은 그 진미를 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자. <전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죽음을 이기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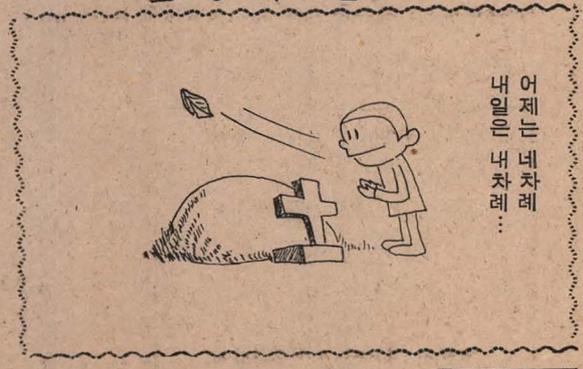
굶주린 호랑이를 만난 여우는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많은 여우는 죽음을 면했다. 여우는 호랑이더러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짐승의 어른이 되게 하였으니, 지금 자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 하거든 내 뒤를 따라와 보라.” 이에 호랑이가 여우 뒤를 따라가니 과연 모든 짐승이 보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거늘, 호랑이가 여우의 말을 정말로 알고 잡아먹지 못했다. 이를 일컬어 호가호위(狐假虎威)라 한다. 말의 뜻인 즉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어 다른 짐승들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림'의 비유」이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여우처럼 간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우선은 여우가 이겼다, 그러나 호랑이의 지혜가 깨이는 날, 여우는 죽을 수 밖에 없다. 당장은 여우의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던 짐승들도 호랑이가 제갈질을 찾은 뒤는 여우를 무시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젠가는 여우를 잡아죽이겠다고 나설 것이다. 한 치 앞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먹기좋은 꽃감을 탐하다가가는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죽음을 목상하는 이 11월에, 자신의 삶이 <호가호위>가 아닌지 살펴보자. 또, <호가호위>하는 여우를 부러워 하거나 앉았는지도 살펴보자. 언제부터인가 우선 한탄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호가호위>를 못해서 안달이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는 날, 여우의 물결은 추하게 나타난다.

언젠가 한번은 죽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자. 언제 죽어도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 후회하지 않는 삶,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다.

숲 정 이 산책



어제는 네 차례
내일은 네 차례
...



□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죽음의 노래

「담한방울 흘리기 사양하던 몸
 검고붉은 추기물 흘려내려도
 더러운지 추한지 알지못하고
 막대같이 뻗뻗이 놓인 그대로
 미안백분 화장품 한껏들여서
 예쁜모양 내려고 애도쓰더니
 그얼굴에 구더기 들썩거리고
 흐느흐느 씩음을 알기나하나
 부드러운 비단만 입으려하고
 입에맞는 음식만 골라먹더니
 버려지듯 양식을 준비해주려
 그와같이 몹시도 안달을했나
 아리따운 자태는 형용도없이
 흥건하게 뉘속에 피어썩는것
 화장품의 향내는 어디로가고
 코찌르는 독취만 가득하온가
 거울앞에 앉아서 꾸미던얼굴
 구멍새개 뚜렷한 해골바가지
 신식치장 다차려 모양내던몸
 영성한뻬 몇가락 이계네차치
 굶주리고 혈빛은 가난뱅이는
 티끌같이 눈아래 내려보더니
 잘났다는 제몸은 얼마잘나서
 먼지되고 흩되어 흩어지는가
 남의부고 우리가 받지않았소
 우리부고 남에게 한번갈게요
 남의시체 우리가 보지않았소
 우리시체 남들이 한번볼게요

(사말의 노래)」

교회에서는 몇개의 달(月)을 축일과 연관이 있도록 정하여 그 한달동안을 특별한 지향을 갖고 신자들이 기도를 바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성월(聖月)이라 한다.

11월은 위령성월(慰靈聖月)이다. 죽은이들의 영혼들, 특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위령의 날이 정해졌고, 위령의 달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가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우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빌어드리자.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분명하고 가장 엄연한 실상(實像)인 죽음을 묵상하자. —준—

□ 사제 인사발령

교구 참사회에서는 로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범선배(라우렌시오) 신부를 광주 대진신학대학 교수 신부로 10월 26일자 발령했다. 그리고 교구 수녀연합회 지도신부에 유장훈(요셉) 산부를 임명 했다.

물가상승은 쌀값인상 때문이 아니다! “쌀 생산비 보장되어야 한다”

쌀은 대부분의 농민이 짓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식량의 주를 이루고 있는 쌀은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과 식량을 무기화하는 국제상황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쌀값의 정당한 보장문제는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모든 농민의 공동 관심사이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농민이 피땀 흘려 지은 쌀에 대해 정당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쌀값 결정에 있어 농민의 요구는 항상 무시되체 농민은 늘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쌀값 제값받기 운동은 곧 우리 농민이 피와 땀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한 운동이며, 식량자급과 국민경제 자립 터전을 닦는 일이다. 쌀값이 보장되면

첫째, 농가 경제면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결정적인 것으로 쌀 생산량의 증대와 아울러 다른 농산물의 가격 보장과 생산량을 증대시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준다.

둘째, 국민 경제적인 면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시정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를 이룩하고 반년 이상을 외국 농산물로 살아가는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안보의 확고한 기반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당한 쌀값의 보장은 정부가 농민에게 해주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또한 생산자인 농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수매때만 되면 쌀값이 일반 물가보다 40%나 상승되었고 양 야단이다. 그러나 80년도에 도매물가는 40%나 상승되었고 비료값은 50%나 인상되었는데 쌀 수매가는 25%인상에 그쳤다.

쌀값 인상이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0.4%인상일 때 도매물가에 0.52%에 불과하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이와같은 쌀값을 두고 쌀값이 일반물가 상승을 선도 주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실제로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환율인상, 원자재값의 인상, 대외채무의 누적과 이자율의 상승, 독점 자본의 폭리에서 비롯된다.

쌀값을 다른물가와 비교해보면 한 사람이 하루먹는 쌀값(정부미 상품가 기준): 246원, 커피한잔: 300원, 담배(거북신): 450원, 짜장면 한그릇: 500원, 시내버스(왕복): 220원이다. 이처럼 한사람이 하루먹는 쌀값은 커피 한잔값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쌀값등 곡물값이 도시 근로자 가계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물가로 어려움을 받고있는 소비자들의 생활 문제를 쌀값에서 해결하려 하는것은 부당하다.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달 하겠습니다.

한미주유소

전화 ⑤ 5669 번

주 최남수(아벨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주단·포묵(훈수·회갑웃갑)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⑤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종교서적·성화·성물

시몬서원

이리시 창인동 1가 235번지

전주교 창인동교회 정문앞

노스텔라(미숙)

ECCLESIA

가톨릭 쉼타에 주님의 성전(경당) 마련

그동안 전주 가톨릭쉼타의 숙원사업이던 경당이 완성되어 지난 10월 19일 그 축성식이 조촐히 거행되었다. 가톨릭쉼타 3층에 위치한 이 경당은 비록 작지만 아담하고 아름답게 꾸며졌으며 조그만 장식하나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성이 깃들인 흔적이 역력했다. 앞으로 언제나 경당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릴 것이다. 혼미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이가 이곳에서 참된 빛과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한 언제나 이곳에서 기쁨과 찬미의 제물이 봉헌되고 평화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세상 구원을 위한 기도의 집, 구원의 집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배틀성서 연구 제2기 졸업식

작년 5월에 시작했던 제2기 배틀성서 연구반(지도: 김준호 신부)의 졸업식이 지난 24일 쉼타에서 거행되었다.

훌륭한 출석율로 58명 전원이 졸업을 하게된 이번 졸업반은 그동안 1년 7개월간에 걸쳐 성서의 구약과 신약 전반을 공부하고 이날의 졸업식을 갖게된 것이다.

김재덕 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된 미사와 함께 갖은 이날의 졸업식에는 교구장 직무대행 김환철 신부를 비롯, 관계 신부님들과 많은 친지 친우들이 함께 하여 졸업 분위기를 한껏 더해줬다.

배틀성서 연구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쉼타에서는 82년도에도 제3기생을 모집, 성서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 무료진료(診療) 봉사활동

김제본당에서는 본당과 공소교우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인술(仁術)을 펼 수 있도록 교우 원장님의 협조를 얻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제 중앙외과의원의 김중훈(배다) 박사님과 3명의 의료진은, 읍내 거주신자에게 언제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문호개방과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공소신자와 그곳 영세민들을 순회로 찾아가 무료로 진료 해 줄뿐 아니라 오랜 투병자에게도 많은 의료시혜를 주고 있다.

6월에 시작한 순회 의료봉사는 이미 만경·백자·봉월공소를 마쳤으며 오는 12월 까지 용지(11월 15일), 와룡(11월 22일), 요갓(11월 29일), 광활(12월 11일) 공소의 순으로 진료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눈앞에 추위를 두고 감사한 마음속에서 모두에게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 깃들시길 빌어드린다.

살 한 숄갈의 사랑 실천 (장수 본당 줌도리운동)

어려운 여건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형제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장수본당 애령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끼니마다 한 숄갈씩 줌도리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 10월 10일 현재 50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장례식까지 치워주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오늘날 도시에에는 이웃집과의 담장은 높아져만 가고, 나 혼자 내 가정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닢”(루카 21:1-4)을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 신앙인의 표본이리라,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

윤성이 (430) 김병오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 2 5 1 3
 한 철 재(비요)

금·은·보석 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4989(사구밖구) ㉠4988

허약한 분, 병약한 분에게!
 보신·보양·고단위 영양 식품
(성모병원) 토 롱 쉼 타
 ㉠ 토롱탕(한방 고단위 영양식품)
 ㉠ 전자썩집기(신경통, 위장병 치료기) 판매
 ※(보·허122호/신안특허7328호)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주문 배달함) 전화 ㉠ 5587
 활 수 산 나

털실·매듭·스킬·리틀포인트·완구
 동양매듭·양초공예 수강합니다
데레사 수예점
 많이 애용해 주세요
 서 데레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1
 (홍빈관 앞)
 ☎ ㉠ 5 0 8 1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2628
 범띠포(덕배)·이 마리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시사항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월기도는 기도서 26면
- '81 추수감사제 및 전북 농민대회 : 일시-11월 20일, 장소-중앙성당
- 문학감좌 : 일시-11월 7일<토>, 센타 강당
주제-제3세계의 문학을 보는 시각. 강사-백낙청(서울대 교수·평론가)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현
3874번 보좌 신부 박인영
사도 회장 김병구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11월 7일 오후 7시30분, 사제관
 2. 성심회 월례회 : 11월 6일 어머니미사 후
 3. 병자방문 : 병자방문을 요하는 분은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4. 위령의 날 : 11월 2일 오후 7시30분
모든 연령을 위하여 교황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 본당 위령의 날 : 11월 23일 오후 7시 30분, 이날은 아침미사 없으니 착오없이 주시기 바라며, 미사참례에 연도책 지참하세요. 봉헌금 있습니다
 6. 세상을 떠난 사제 위령의 날 : 11월 30일
 7. 입탄 봉헌 : 불쌍한 형제를 위해 모두 봉헌합니다
 8. 본당 신심단체 체육대회 : 11월 1일 오전 9시
모두 참석합니다
 9. 부활반 예비자 입교 환영식 : 11월 1일 공식미사중
 10. 신고 공개설 : 11월 1일 오전 11시
특별헌금 : 정마리아-제대초(2만원), 꽃봉헌(5천원)
- 지난주 봉헌금 : 539,440원

3.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강기연, 임한진 형제)
 4. 첫 칠레 5 : 11월 5일 저녁 7시30분<목>
첫 칠레 7 : 11월 7일 저녁 7시30분<토>
 5. 부녀회 월례회 : 11월 2일 <월> 어머니미사 후
 6. 견진자 교리 : 10월 26일~11월 7일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견진일자 11월 15일 공식미사)
 7. 다음주 전례 : 해설-안가다리나
독서-①김성원 ②장필너
- 지난주 봉헌금 : 344,705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영수

1. 견진성사 : 11월 1일 오전 10시, 축하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사무실)
 3. 반장님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회의실)
 4. 가정방문 : 7반(3일~6일까지)
 5. 고무금을 납부합니다 : 아직도 미납하신분 빠른 시일내에 완납합니다
 6. 다음 전례담당 : 독서-①조동근 ②김나섭
- 지난주 봉헌금 : 191,050원 고무금 : 180,6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베소라 성서강의 : 3일<화> 저녁 7시30분~9시30분
주제 : 예수 머리위에 향유를 부음-메세야의 임무-마르 14 : 3-9, 마태 26 : 6-13, 요한 12 : 1-8, 루카 7 : 36-39의 중점으로
 2. 견진성사 접수 :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은 8일까지 영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3. 고무금을 납부합니다 : 고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11월중에 고무금을 완납합니다
 4. 수녀님들의 베소라 성서특강 : 2일 오후2시~4시까지
 5.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갈라디아서, 에페소서, 필립πισ서, 골로사이서 전체
 6.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매주<금> 오후 7시30분부터
 7.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290,251원

(숲정리)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⑨9567 사도 회장 이강노

1. 11월 위령성월 : 매 미사후 성월 바칩니다
 2. 위령의 날(11월 2일) :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선조님들을 위하여 정성껏 미사와 기도드립니다
 3. 누깰다 부녀회 월례회 : 11월 6일
 4. 사도회 월례회 : 11월 7일 공식미사 후
 5. 주일학교 아동미사 : 매주일 오후3시, 착오없이 바랍
 6. 중·고등학생 성가연습 : 매일 7시30분
많이 참석 바랍니다
 7. 차주 전례담당 : 해설-정주복
독서-①노제두 ②김강영, 기도-이기호
- 지난주 봉헌금 : 424,800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도회 월례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2. 견진자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 오늘부터 교리시작-필기도구 지참
 3. 매월 둘째주일은 애령주일입니다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니다
 4. 반석회 정기월례회의 : 둘째주일(7일)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5. 각 분과위원장님을 모임 : 사도회 월례회의 후
사업계획 검토
 6.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저녁 7시
 7. 주일학교 교리 : 일요일 2시 교리, 3시 미사
귀염둥이 많이 보내주세요
 8. 오늘부터 저녁미사 변경 : 저녁 7시
- 지난주 봉헌금 : 426,61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⑥6208번 보좌 신부 이영준
사도 회장 이영준

1. 유아세례 : 학생미사 후
 2. 사도회 :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 다음주(11월 8일) 공식미사 후
 4. 장우회 : 다음주 저녁미사 후
 5. 추계 가정방문 : 11월10일~13일 : 동교동, 서교동
11월17일~20일 : 동완산동, 서완산동, 24일~27일 : 풍남동, 기타동, 12월 1일~4일 : 전동, 남노송동, 12월 8일~11일 : 중앙동, 경원동, 다가동
 6. 성가절회 : 오늘 오후 2시
 7. 다음주(11월 8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박순기 ②박중수
공식미사 : 해설-양현웅, 독서-①신일균 ②백종훈
저녁미사 : 해설-정양수, 독서-①변해석 ②김중수
- 지난주 봉헌금 : 463,225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11월은 위령성월 : 매 미사후 공동성월 바칩니다
위령성월에 선영을 위한 미사는 미리 접수하셔야 제 날짜에 드릴 수 있습니다
2. 사도회 : 오늘 저녁 7시30분, 사도회 임원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요망(예산심의)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 저녁미사 후
 2. 기사회 : 첫토요일(7일)
 3. 견진성사 : 11월 8일 10시미사 중
견진자는 ① 교리에 꼭 참석할 것
② 고백성사를 받을 것
③ 대부·대모를 미리 선정할 것
 4. 연령들을 위해 기도와 불사와 회생을 바칩니다
 5. 고무금에 정성을! : 일람표를 보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128,260원 고무금 : 287,000원